

늑막박피술후 폐기능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연세의대 흉부외과학교실
김창수 · 김길동 · 정경영

늑막박피술은 만성농흉의 중요한 치료방법중 하나이다. 늑막박피술의 목적은 감염원인의 근원적 제거와 수술후 폐기능의 향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폐기능의 향상 여부는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연세의대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늑막박피술후 폐기능의 향상을 알기 위해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농흉으로 늑막박피술을 시행받은 환자중 수술전후에 폐기능검사를 시행한 32례와 폐관류스캔을 시행한 11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1) 수술 전후에 시행한 FEV1(1초간 강제호기량)의 평균은 각각 2.33L와 2.61L로 유의있게 증가하였다 (P=0.011)
- 2) 수술전후의 폐관류스캔을 비교하여 늑막박피술을 시행받은 폐의 술전 FEV1의 평균은 0.56L였고 술후 평균은 0.78L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P=0.071) 수술후에 증가하였음을 알수 있었다.
- 3) 늑막박피술을 시행받지 않은 대상측 폐의 수술전후의 FEV1을 비교하였으나, 각각 평균 2.04, 2.03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909)
- 4) 연령별로 수술전후의 FEV1을 비교하여 20세 미만에선 통계적으로 유의있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P=0.001), 그 이상의 연령군에선 유의성이 없었다.
- 5) 추적관찰기간에 따른 폐기능 향상은 24개월 이후부터 측정된 FEV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게 증가하였다.(P=0.026) 그러나, 24개월 이전에선 유의성이 없었다.
- 6) 만성농흉의 원인을 결핵성과 비결핵성으로 크게 대별하여 수술전후의 FEV1을 비교하면, 결핵성 농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게 증가하였으나(P=0.008), 세균성,외상성 및 기타 원인에 의한 농흉에선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P=0.471)

결론: 늑막박피술후 폐기능은 20세미만의 연령에서 증가하였고, 농흉의 원인중 가장 많은 결핵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게 증가하였고, 추적관찰 기간이 수술후 24개월이후에 측정된 폐기능검사서 유의있게 증가하였다.